

2017년 시부문 심사평

작년보다 월등히 많아진 응모자 숫자는 우리를 설레게 했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응모작들의 수준은 예년에 비해 높지 않았다. 소설 부문에서는 흔쾌히 당선작을 골라낼 수 있었다고 하고, 동화 부문에서는 당선작 한 편만을 뽑는 게 아쉬울 정도로 수준작이 더 있었다 하니, 우리가 느낀 아쉬움은 유독 시 부문에 한정된 것이었던 모양이다. 정치사회적 격변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 하고 싶은 말은 많아졌으며 그 말들이 시의 형식을 입기에 적당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일까. 시대 덕분에 우리가 해야 했던 힘차고 아름다운 말들이 꼭 시여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, 그 다른 말들이 충분히 힘차고 아름답다면, 우리의 아쉬움은 달래질 만한 것이기도 하여 다행이다. 두 사람이 본심에 올린 여섯 편의 응모자는 다음과 같다.

‘차별에 대하여’ 외 4편은 정직하고 단단한 표현들로 시의성 있는 메시지와 정서적 울림을 동시에 산출해낸다. 그러나 “차이를 인정하기는 불편했고 차별은 쉬웠다”나 “적당히 치부하고 눈 감고 사는 정의로운 세상” 같은 사례들처럼 ‘실명’으로 떨어져버리는 대목들이 아쉬웠다. ‘3월의 이팝나무’ 외 4편은 조곤조곤한 어조로 독자에게 희망에 대한 의지를 전염시킨다. 대체로 시를 길게 끌고 가는데도 나름의 긴장을 놓지 않는 기교도 있었다. 그러나 역시 완전히 통제되지 못한 채 튀어나와버린 직설 어법들이 곳곳에서 걸렸다.

‘쏟아진다’ 외 5편에는 오랫동안 시를 써 온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유려한 자연스러움이 있다. 읽다 보면 그 리듬에 이끌려서는, 심지어 뜻이 잘 통하지 않는 문장들조차 타 넘으면서, 어느새 끝에 이르게 된다.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“삶에는 입구가 없어”나 “세상에는 완전한 타원이 없다”와 같은 잠언 투의 구절들이 왜 거기에 있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납득되지 않아 다소 어리둥절한 기분이 된다. 유려함과 정확함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은 없었을까.

‘푸줏간이 있는 동네’ 외 4편 역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려하다는 말이 딱 적당한 시들이다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인의 뛰어난 기교가 오히려 시 자체의 진심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다. 예컨대 ‘유클리드 연대기’에서 “삶의 기술기는 바뀌어도 무게중심이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어서”나, “증명할 수 있는 명제와 증명할 수 없는 삶 사이의 함수를 그는 정의할 수 없었기 때문”과 같은 ‘매끄러운’ 구절들은 왜 뭔가 ‘과하다’는 느낌을 주는 것일까. 시인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.

심사위원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은 ‘누구나의 교리’ 외 4편과 ‘흑백’ 외 4편이었다. ‘누구나의 교리’ 외 4편에서 특히 ‘누구나의 교리’는 이번 응모작들을 통틀어서 가장 젊고 탄력 있는 화법으로 쓰인 작품이었다. 그러나 이 시가 5·18 문학상의 정신에 어떤 식으로건 연결돼 있다고 볼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, 또 자칫 체념과 냉소만으로 이루어진 ‘단한 세계관’의 소산으로 보일 여지도 있다는 점, 함께 보낸 다른 작품들에서 아직 못다 통제된 감상주의가 남아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결국 최종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.

‘흑백’ 외 4편이 선택된 이유는 ‘누구나의 교리’를 내려놓은 이유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다. 직접적이거나 생경한 부르짖음 대신에 흑백과 컬러의 이미지 대비 효과를 끝까지 잘 활용하면서 여하튼 1980년 5월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잘 말해보려는 의지가 느껴진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인 장점이었다. 유려함만으로 따지자면 다른 응모자들의 작품(‘쏟아진다’, ‘푸줏간이 있는 동네’, ‘누구나의 교리’)보다 소박한 편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울림이 느껴지는 경우였다고 할까. 그러나 마지막 연의 모호함은 시 장르 본연의 매력적인 모호함이라기보다는 논리적 불명확성에 가까운 모호함이라고 판단돼, 그 아쉬움을 어찌지 못하고 고심 끝에 이 시를 가작으로 선정하였다. 오히려 이 결정이야말로 수상자에게 더 값진 조언과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다행스럽겠다.

심사위원: 서효인(시인), 신형철(평론가)